

실시간 개인 방송의 진행 원리 분석

Analysis on Communication Aspects of Live-streaming Broadcasting Contents

김수진

이화여자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Kim su-jin

Department of Content Convergence in Ewha
Woma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실시간 개인 방송에서 이뤄지는 담화의 상황을 통접, 이접, 연접이라는 질 들뢰즈의 개념으로 분석하고, 실시간 개인 방송에서 나타나는 시청자의 개입 행위와 그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는 방송의 진행 양상을 '특이점(point singulier)'과 '사건(événement)' 개념을 통해 분석했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으로는 아프리카TV의 <대도서관TV> 채널의 '24시간 연속 생방송' 편을 선정했다.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산업적 규모가 확장되고 있으며, '방송의 개인화'를 불러오고 있는 MCN 방송 콘텐츠 중 실시간 개인 방송의 진행 원리와 그 미학적 함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I. 서론

인터넷 개인 방송은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방송 콘텐츠로서 전통적인 TV방송과 디지털 영상 콘텐츠 사이의 경계를 와해시키는 혁신적 서비스다. 인터넷 개인 방송은 멀티-채널 네트워크(multi-channel network, MCN)를 통해 콘텐츠 창작의 계급 파괴를 주도 하면서 프로그램 공급자를 제작사가 아닌 개인으로 바꿔 놓는, 방송의 개인화(personalization)을 촉발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술·산업 중심의 외재적 고찰만 이뤄졌을 뿐, 내재적 콘텐츠와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연구의 진전과 더불어 깊이 해명되어야 할 현 과제는 인터넷 개인 방송이 사용자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물음으로 집약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멀티 채널 네트워크가 곧 인터넷 개인 방송이라는 기술·산업 중심적 시각에서는 Youtube와 같은 주문형(video-on-demand) 방송 서비스와 아프리카TV와 같은 실시간 스트리밍(live streaming) 방송 서비스의 본질적인 차이가 간과된다. 전자가 이미 만들어진 동영상을 공유하는 서비스라면, 후자는 방송자와 사용자가 동영상을 매개로 실시간 대화를 하는 서비스이다. 전자가 지향하는 바가 공유(sharing)라면, 후자는 반응(response)인 것이다.

표 1. 인터넷 개인 방송의 분류

유형	주문형 방송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목적	공유	반응
특징	시간의 제약 없이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사이트에 업로드 된 방송을 선택해 시청	실시간으로 증계되는 방송에 사용자들이 채팅을 통해 참여하며 반응
대표 플랫폼	Youtube, AwesomenessTV	아프리카TV, Ustream

본 논문은 방송에서 이뤄지는 의사소통방식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로서, 실시간의 구전 전파력을 갖는 시청자(viral audience)가 참여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국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서비스인 아프리카TV의 방송 콘텐츠 가운데 <대도서관TV>의 2014년 12월 24일에 진행된 "대도서관 특집 24시간 연속 생방송" 편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대도서관TV>의 진행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서비스에 내재한 콘텐츠의 특징과 미학적 함의를 드러내고자 한다.

II. 질 들뢰즈의 존재론적 소통 개념의 재구성

들뢰즈는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조건 또는 그 결과로서의 구조보다는 그 위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 행위를 더 중시한다. 나아가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이 구조에 영향을 미쳐서 구조와 행위 전체가 또 다른 차원으로 변동하는, 이른바 '탈영토화하는 소통'에 주목한다. 구조화된 조건을 비껴나면서 그 구조를 흔들고 지연시키는 '생성하는 소통'의 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들뢰즈는 생성의 커뮤니케이션을 작동시키는 원리로 ‘연결’을 함축한 ‘절단’을 제시한다. 이는 통점, 이점, 연점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1].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통점은 하나의 담화가 다른 담화에 접속되는 것을, 이점은 담화가 하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다른 수많은 기능들과 분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점은 통점과 이점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으로, 담화가 하나의 기능을 하되 잠재적으로는 다른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각각의 담화들은 각각 하나의 항(terms)들로서, 서로 이웃한 담화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2]. 즉, 담화들은 계열화라는 이어짐에 의해 ‘사건화되고, 사건화를 통해 의미를 갖는다. 즉, 사건은 고정된 것으로 존재하지 않고 끊임없이 세계와 주체, 항 사이의 역동적 과정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개념에 비춰 볼 때, 실시간 개인 방송은 차이를 지닌 담화들이 실시간으로 헤쳐다가 모이는 역동적인 방송이다.

Ⅲ. 실시간 개인 방송의 진행 원리

1. 현시화되는 수행적 발화

인터넷 개인 방송은 방송자에 의해 방송이 진행되는 공간과 시청자가 실시간 채팅을 통해 발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시청자는 병치된 두 공간을 인식하고, 실시간 발화한다. 하지만 이때의 발화 행위는 단순 방송에 대한 감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화 자체로 방송 전체 맥락이 변화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시청자의 적극적 개입 행위는 끊임없이 방송을 변화시키려는 행위를 채팅으로 보여준 것으로, “수행적 언어행위(performative utterance)”[3]라 할 수 있다.

시청자의 수행적 발화는 들뢰즈의 통점적 발화, 연점적 발화, 이점적 발화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방송자가 직접 시청자의 담화를 소리 내어 발화함으로써 방송으로 수렴된 통점적 발화가 있다. 주로 방송자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나 방송자가 의도한 방송 주제에 걸맞은 발화들이 포함된다.

이보다 더 주목할 것은 연점적 발화로, 방송자가 한 행동이나 말에 대한 시청자의 기발한 해석이나 반복적인 발화다. 방송자가 의도했던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또 다른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지적”[4] 발화들로서, 연점적 발화는 실시간 개인 방송의 역동성을 추동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송으로 수렴되지 못한 이점적 발화가 있다. 방송 주제와는 동떨어진, 이질적이고 사소한 개인의 발화들이지만 방송의 분위기를 좌우하기도 하며, 들뢰즈가 긍정한 일탈의 측면을 보여주는 발화들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시청자들의 수행적 발화와 그로 인해 변화해가는 방송의 모습은 들뢰즈의 개념에 따른다면 ‘현시(manifestation)’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시청자라는 주체가 자신의 의식을 통해 대상을 구성함으로써 스스로의 욕구나 신념을 드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2. 발화의 우연적 조합을 통한 방송의 생성

발화의 조합은 방송자에 의해 이뤄지지만 방송자가 시청자의 여러 발화들 중 하나가 ‘우연’에 의해 선택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송 콘텐츠와는 대별된다. 일례로 방송자 대도서관의 모습에 대해 많은 시청자들이 장군의 개선, 황제 행차와 관련된 발화를 했다. 그 중에서도 ‘트윈스’, ‘아몽’이라는 두 시청자의 발화가 선택됐는데, 이는 타당한 인과적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우연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연적 선택은 방송의 진행에 있어 ‘특이점’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시청자의 담화는 언제라도 진행되고 있는 방송의 주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탈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들뢰즈는 우발적으로 “쫓아오른다”고 표현한 바 있다[5].

이처럼 방송의 진행 과정은 우연성에 기반을 두고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연속 생방송” 편을 분석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35번의 주제적 변화를 거듭했다. 즉, 실시간 개인 방송은 종합적이고 완결된 서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의미를 향해 열려 있는 서사로 존재하게 된다.



▶▶ 그림 1. 시청자들의 발화에 의해 실시간 구성되는 방송

Ⅳ. 상호교합의 장으로서의 실시간 개인 방송

담화들이 서로 중첩, 반응해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의미를 생성해나가는 실시간 개인 방송은 일종의 ‘팔립프세스트라’ 할 수 있다. 잠재적으로 존재하던 시청자의 발화는 특정 순간에 현실화되면서 의미를 갖게 되고, 하나의 특이점이자 사건이 된다. 즉, 방송자의 진행적 담화와 시청자의 수행적 담화는 상호교합함으로써 거대한 장을 만들어낸다.

■ 참고 문헌 ■

- [1] Deleuze, Gilles, 의미의 논리(이정우 역), 한길사, 1999.
- [2] Deleuze, Gilles, 차이와 반복(김상환 역), 민음사, 2004.
- [3] Austin, J. L., 말과 행위-오스틴의 언어철학, 의미론, 화용론(김영진 역), 서광사, 2005.
- [4] 이진경, 노마디즘1, 휴머니스트, 2002.
- [5] 이정우, 사건의 철학, 그린비, 2011.